

교 회 복 표

신령한 예배
친구같은 양생
인독복을와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 1:21)

발간사: 김성관

출판: 순흥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500

©2002 순흥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영수

달고 오묘한 그말씀/공요인

기독교 신앙의 뿌리 **구약성경**

5. 하나님의 약속의 확장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계속적으로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셨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점점 더 확장되어갔다.

1) 출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약속 (창 15:1-22장) '자식 시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나안의 완전 정복은 중단되었고, 주변국가와 타협하고 혼합되어갔다(삿 17:6; 21:25).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래서 세상의 구별되지 않는 백성으로 전락했으며, 지속적으로 타락·질세·회개·구원의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언약을 확장시켜 나갔다. 이들의 변절은 세상의 도전을 믿음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한 때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였다. 하나님보다, 더 발달된 이방의 문화와 제도가 추구의 대상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추종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우상숭배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절대적이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왕을 달라고 요청하고 말았다(삿 8:22, 삼상 8:19~20).

2) 사울 왕국의 '자식'·'아들의' 비극 (삼상 13장~왕상 13장)

'자'의 양태에 있어서 인간의 자질(삼상 13:2), 자녀교육, 이스라엘을 향한 충성심은 모범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서히 하나님께 떠나 자기 스스로 타락하기 시작했다(삼상 13:9, 13:14~24, 13:15, 22:22~23:19; 23:19~24:1; 28:5~7). 그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의 회개는 일시적인 위로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삼상 24:16~21). 그의 타락과 몸부림의 이유는 간단했다. 인간의 세속적 욕망이 발동한 것이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보다 '열방의 왕'이 되는 것이 필요했고, 하나님보다 세상 무기를 신뢰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이 처음과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말해 준다. 사울은 겸손하다가 왕이 되어서 교만해진 사람이었다(삼상 9:21). 성경으로 시작해서 욕대로 마친 사람이고,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인지와 권력에 대한 집착과 집착이 강한 사람으로 변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목적보다 자기의 목적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 무관한 사람으로 생애를 마쳤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장되었다.

3)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 안에서 그의 열매(삼상 13장~왕상 2장)

다윗은 거룩히 정직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팔레스타인을 유일하게 정복한 사람이었으며, '사울'의 부하 '아브넬'을 받아들임(삼상 31:2, 20),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옴으로(삼상 3:13~14), 왕위 계승의 정통성과 정정통함을 시도하였다. 또한 외교정책으로 시돈과 교류하였고, 종교정책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옴으로써 종교적 통합까지 이룬 사람이었다(삼상 6:1~2). 그러나 그는 가장 넓은 곳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침(삼상 5:13, 삼하11장), 그의 범죄는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져 근친상간(삼하13:14), 형제간의 권력쟁탈을 위한 자식의 쿠데타 등이 일어났다(삼하14~18장). 그리고 그의 교만은 백성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기도 했다(삼하24장). 그러므로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보다 냉철하게 바라보면 진심은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 성경은 단호하게 한 나라의 왕의 범죄 사실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은총에 대하여 진실하게 기록하였다. 그의 간악한 불의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죄인이었던 그를 통해서 대언자가 탄생할 것을 약속하셨다(삼하 7:12~14). 하나님을 향한 은총의 찬송을 부른 다윗(삼하 23:15)! 결국 이들에게 대한 다윗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결코 그의 자적 태만이 아니었다. 그의 열매였다!

4)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이스라엘의 '임시'와 '소망'

다윗의 시(詩)를 통해서 고백된 은총의 복음과 메시아 사상! 그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과(삼하 2:7, 8, 10, 12; 18:1, 2, 27, 55),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삼하 20:1, 2, 6, 9), 그리고 왕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기인한다는 사실(삼하 21:3, 4, 5, 7) 원 수에 대한 승리마저도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함에 잘 녹여져 있다(삼하 45:7).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셨고(삼하 8:19, 20, 26, 28), 그와 계약을 나누셨다(삼하 11:01, 5). 그것은 다윗을 통하여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러

로 다윗에게 가장 큰 축복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사 32:1, 2; 눅 1:27; 롄 1:3, 디모 2:8; 마 21:9, 계 22:16).

6. 언약에 대한 선지자적인 이해

왕의 백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신앙(왕상 12장~왕하 25장)

다윗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복잡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하나님께서는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두루시 들으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를 생명의 의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 곧 십자가를 뒤로하고 영동하게 인간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이스라엘을 우상의 소굴로 만드는 주된 요인이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을 정당화시키려하거나 그러한 삶을 본받아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영혼에 대한 고통한 마음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국의 분열을 일으켰고, 수하였던 예로보암은 이스라엘을 창시하였다. 예로보암은 계속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유다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단을 베냐민 단에 세웠고, 하나님의 명칭을 현상인 맞추는 패역한 범죄를 저질렀다. 어디 그뿐인가? 유대의 역사책들은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 가장 악한 아합왕과 동맹을 맺었고, 요람은 아합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바알을 섬기는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져들었으며, 이세벨의 딸 아달라는 정권을 잡은 뒤 다윗의 후손을 말살하려는 죄악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하나님께는 세상의 부패·죄악은 가득찬데도 재물과 권력과 권력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부패이 아니라 곧 심판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왕들도 있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불린 사람이었고(왕하 18:4~6), '요시야'는 악한 우상의 신상과 모든 악을 제거하여 종교개혁하여 하나님 마음에 찬양하였다(왕하 23:22~24). 그리고 요시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 까닭에 전정전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왕하 23:29). 보라! 이런 규칙도 없다. 단지 매일 매일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할 필요할 뿐이다. 우리의 영혼에서 십자가가 높아지지 않으면, 저절로 자아가 높아지며 즉시로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는 악한 왕이 되고 만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해서 경고하셨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할지는 말인가?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을 도우셨던 하나님과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원수화하였다(미 3:11).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의 언약을 지킬 것이며, 자신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한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언약에 있어서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거나 변명의 우상에 서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 그들은 오늘날 이리저리 타성에 젖어서 여전히 주님을 향해 세상의 축복을 받고 또 바라는 이스라엘의 자들과 다를 바 없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과 악을 구분하여 선을 지키라고 했지만(사 5:14),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하여 변명을 내리고 각각했다(사 9:10).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한 회개의 축구를 거부하였으니까(미 2:6), 오히려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복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였다(삼하 1:12).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였다(삼하 5:12). 축복받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예레미야, 미가, 하세, 등 모든 선지자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느껴야만 했다(렘 8:8; 21:13; 14:9). 그리고 그들의 탄식과 애절함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들린다(렘 8:1, 미 4:9).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오직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과정이다. 십자가의 과정이란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이루어가면 모든 구원의 여사를 의미한다. 우리가 죄를 짓기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구주'이며,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주'가 아니다. 그들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들일 뿐이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주' (마)라고 고백했다. 그렇다. 우리의 '주'는 예수이시다. 그는 고난의 '주' 시로 십자가의 '주'이시다. 초대교회는 이 사상을 증거하기 위해 고난받았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우리의 시각은 고난의 십자가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솔로몬의 영광에 머물고 있는가? 그리고 초대교회는 죽음을 앞두고도 그리스도를 찬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소유물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함께 마셨다. 그들은 영혼에 관심을 두었으며, 사회를 움직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 세상에선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영혼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다녔다. 이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

Return

(Jeremiah 3:12-23)

*Go and proclaim these words toward the north and say,
'Return, faithless Israel,' declares the Lord; 'I will not look upon you in anger.
For I am gracious,' declares the Lord; 'I will not be angry forever*

How often does God ask us to return to Him, turn from our sinful way, and return to His way? So many times God says "return". It seems like He says it all day long. The kindness, love, care, and mercy that He gives to each believer is beyond measure. His deep and unbreakable promises fill poor believers with great peace. When believers backslide it truly is a most terrible thing. For God to have to ask backsliders to return is even sadder. Backsliding is a serious affair. To turn away from God's mercy, love, hope, peace, blessing, and promise by turning to a sinful life is the most despicable behavior in the world. Even if the believer gets something valuable from this world by his wicked actions, he really gains nothing. Blessings only come from the Creator, the King of Kings, the Mercy God. Backsliding believers can't find grace apart from God.

Let's think about how remarkable it is that God wants to accept backsliders. Jeremiah 3:1 tells us, "God says, 'If a husband divorces his wife and she goes from him and belongs to another man, will he still return to her? Will not that land be completely polluted? But you are a harlot with many lovers; yet you turn to Me,' declares the Lord." How great is our Lord's love? When you think about yourself, you realize how full of sinfulness you really are. We're like lepers, decaying day by day. How is that in front of God, we refuse to be ashamed, "Therefore the showers have been withheld, and there has been no spring rain. Yet you had a harlot's forehead; you refused to be ashamed" (v. 3). Headstrong and stubborn people, even after scolding, don't feel the need to be shameful. Selfish people don't even know how to be shameful. Further, believers still ask for blessings, "Have you not just now called to Me, 'My Father, You are the friend of my youth? Will He be angry forever? Will He be indignant to the end?' Behold, you have spoken and have done evil things, and you have had your way" (vv. 4&5). How terrible is our way? Everything we do apart from God is evil and terrible (see vv. 6-11). Isn't it truly amazing that He wants us to return?

Let's remember some good things, like the time when we first found Jesus Christ. Can you remember how happy you were? Your sins were washed away and you became God's child. You had good relations with God. You had peace. You even talked to your family and friends about Jesus. You advised other people about the dangers of hell and the blessings of heaven. But now, little by little, you're backsliding. Your deep conscious is bothering you and guilty feelings crowd your mind. You can hear the Holy Spirit crying. Open our heart to remember God's love my dear friend.

Let's consider the reasons for obeying God's call to return. It is God Himself who utters these words. Twice we read in today's opening passage, "declares the Lord". He is the one who is calling. He is the one who won't be angry with you, "I will not look upon you in anger" (v. 12). This is an emergency signal. God says, "Return, O faithless sons," declares the Lord; For I am a master to you, and I will take you one from a city and two from a family, and I will bring you to Zion" (v. 14). His love continues. Not only that, but, "Return, O faithless sons, I will heal your faithlessness" (v. 22). God will heal our backslidings. This is what He is calling you to. Read each

verse, it yields its own forcible argument. Hosea 14:4 also affirms, "I will heal their apostasy, I will love them freely, for my anger has turned away from them". God's asking you to return because He, and only He, can remedy the consequences of backsliding.

Let's understand the directions God gives us to be obedient to His call. He tells us, "Only acknowledge your iniquity, that you have transgressed against the Lord your God and have scattered your favors to the strangers under every green tree, and you have not obeyed My voice, declares the Lord" (v. 13). We must confess our sin. What a simple matter! We must not continue to mourn over past deeds, "A voice is heard on the bare heights, the weeping and the supplications of the sons of Israel; because they have perverted their way, they have forgotten the Lord their God" (v. 21). Don't weep and constantly pray over the bad things you have done. Once you confess, God forgives. It's only the devil that makes you remember. Coming to the Lord brings happiness and release, not bondage to the things of old. Confess, turn around, and weep no more. God is true, Truthfully come back to Him. Listen to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Let's reflect on the promises made to those who are obedient, who answer the call. They will receive special guidance, "I will bring you to Zion" (v. 14). You can't go yourself. They will receive special food, "I will give you shepherds after My own heart, who will feed you on knowledge and understanding" (v. 15). They will receive spiritual insight, "It shall be in those days when you are multiplied and increased in the land, declare the Lord, they shall say no more,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And it shall not come to mind, nor shall they remember it, nor shall they miss it, nor shall it be made again. At that time they shall call Jerusalem 'The Throne of the Lord,' and all the nations will be gathered to it, to Jerusalem, for the name of the Lord; nor shall they walk anymore after the stubbornness of their evil heart" (vv. 16&17). They will receive the foundation of blessing, "How I would set you among My sons and give you a pleasant land, the most beautiful inheritance of the nations! And I said, 'You shall call Me, My Father, and not turn away from following me'" (v. 19).

The whole subject of backsliding needs pressing upon all believers, for we may have already backslidden more than we are aware of. To the conscious backslider the call should be pressed; Return! Turn! Return! Hosea 6:1 tells us,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 For He has torn us, but He will heal us; He has wounded us, but He will bandage us." Amen. My dear friend, what more are you expecting in this sinful world? Come to the Lord. He says,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Mt. 11:28). He is the Lord, He is the king, He is the Creator. He sent His Son to this earth to save you. After you are saved, why do you want to backslide? Please listen to His gracious calling. Oh, believers, don't backslide. Return, turn, and return. This moment the Holy Spirit guards you. Jesus wants to come into your heart and be your Master. Deny yourself, accept Jesus as your Lord. Just confess, "I am a sinner, open my heart Lord Jesus and be my Master". ■



김선관 목사

지속적인 요청

하나님께서서는 얼마나 자주 우리를 향하여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요청하십니까? 죄의 길에서 돌아켜서 그분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일토록 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주께서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배주시는 친절과 사랑, 돌보심과 자비하심, 이 모든 것들은 축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분의 깊고 깨어지지 않는 연약은 믿는 자들의 가난한 마음을 큰 평강으로 가득하게 채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타락하게 될 때, 진실로 그것은 가장 끔찍한 것이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과 육체에 속한 것을 얻으려고 되돌아서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타락했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가장 심각한 일입니다. 믿는 자들이 죄와 벗하는 생활로 되돌아감으로 만일악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소망과 평강, 그리고 축복과 인약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행동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믿는 자가 사악한 행동을 하여 이 세상으로 부터 어떤 대가를 얻는다면, 진실로 그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축복은 오직 왕 중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신 창조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영접해 주심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던 자들을 영접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주목할만 한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 31:3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므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찾겠느냐 그리하여 그 땅이 크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 내게로 돌아오려나".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하니까?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실제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 자들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썩어 가는 나병환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면에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부끄러워 감히 대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떨어졌느니라. 그러지라도 내가 창녀의 낫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3절). 꽃들은 후에도 완고하고 고집 세 사람은 잘못을 지적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역시 부끄러움을 느끼야 할 이유를 모릅니다. 게다가 믿는 자들은 여전히 축복만을 간구합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끄러움을 나의 아버지가 아버지는 나의 소의의 애호자이니 내 마음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미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4~5절). 만일 우리의 모든 것이 이와 같다면, 그것은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악하고 자주스런 것입니다(6~11절 참조).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진실로 놀라운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첫 만남의 음성을 기억하고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그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억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때 여러분의 죄가 씻겨졌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옥의 위험함과 천국의 축복에 대해서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씩, 여러분은 타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의식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으며, 죄책감은 여러분의 마음에 꼭 들어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탄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이유

되돌아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이유들을 살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니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본문에서 "여호와와 말이니라"라고 시작하는 구절을 두 번씩이나 읽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진노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라"(12절). 이것은 위급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들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14절).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돌아오라 (렘 3:12~22)

**"너는 가서 복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라"(22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락함을 고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각 절을 읽으십시오. 말씀 자체가 강제성을 띤 논의를 드러냅니다. 호세아 14:4 또한 이렇게 단언합니다. "내가 너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너희를 사랑하리나 나의 진노가 적에게서 떠났음이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 때문에 되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요청은 타락에 빠져있는 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름에 순종하도록 주신 지침을 이해하여 봅시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와 말이니라"(13절).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된 행위를 지속적으로 슬퍼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금해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라"(21절). 여러분이 행했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울거나 계속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회개는 한 번이면 충분하며,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오로지 악한 자가 그것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행복과 해방을 주시는 주께로 오십시오. 애전의 그들이 주는 명맥을 매지 마십시오. 고백하고 되돌아서서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참되시며, 신실하시므로 가득하신 그분께로 돌아오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돌아오는 자들을 향한 축복

부르심에 대답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연약을 숙고해 봅시다. 그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14절). 여러분은 스스로 시온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음식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네 마음의 원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평강로 너희를 양육하라"(15절). 그들은 영적 조명을 받을 것입니다.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일 때 예는 사람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너희가 내게 애무살렘이 여호와와 보좌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들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와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강박한 대로 행지 아니할 것이"(16~17절). 그들은 축복의 근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니 싸매어 주시 것임이라. 그분은 참된 왕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후, 왜 타락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의은로우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오 믿는 자들이여, 주께로 돌아와서 멀리 떠나 타락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속히 돌아오십시오. 이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가시길 원하시며 주인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즉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주 예수께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돌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

속히 주님의 품으로

타락에 대한 모든 주제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타락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은 타락한 자들의 의식하도록 도전을 줄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속히 돌아오라! 호세아 6:1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쫓았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니 싸매어 주시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출현의 성도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로 오십시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숙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11:28). 그분은 우리입니다. 그분은 참된 왕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후, 왜 타락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의은로우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오 믿는 자들이여, 주께로 돌아와서 멀리 떠나 타락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속히 돌아오십시오. 이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가시길 원하시며 주인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즉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주 예수께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돌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

단기선교파송을 앞두고

우즈베키스탄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장 철 규 (집사, 13교구 단기선교단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위의 성경구절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은 읽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듣기도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나같이 모든 것에 부족하고 아둔하여 지혜와 명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솔직히 나와는 동떨어진, 나와는 상관없는, 아니 좀더 솔직히 타국에 관심을 가련 갖지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 파송된다는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땅끝까지는 커녕 국내에서의 전도활동만 하면 되겠지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찬송 390장과 519장을 부르게 될 때에는 나의 믿음이 얼마나 외적이며 가증스러운지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 많고 더러운 우리들을 주님의 도구로 급하게 쓰시고자, 여러 가지의 교육을 통하여 모란 부분은 다들으시고 씻기시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단기선교단은 지금까지 사역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 번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제와 돌이켜 생각하면 지나온 나날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은혜의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 직장에 다니시는 집사님, 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를 둔 집사님들! 육신적으로는 단기선교를 안 가련 안 갔지 어떻게 사일, 직장, 가정을 다 떨쳐버리고 11월 12일 동안 선교를 갈 수 있는 지 의문이 갔던 나였지만, 집사님 한분 한분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충성·헌신적인 믿음에 대해 충무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 선교단은 오직 복음의 메시지만 전하고 온다는 일념 하에 한 마음이 되

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몸 쓰임받을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에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께 수고하고, 잘했다는 칭찬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 위해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해 봅니다.

기도제목

1. 십자가 군병들이 나아가는 앞 길에 사단이 골짜기 못 하도록,
2.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3. 돌아올 때까지 시일, 직장, 가정의 평안하도록,

2002 중헌 단기선교 2차팀 사역기간

부서	사역지	날짜
13교구	우즈베키스탄	7월 2일(화)~13일(토)
가브리엘	몽 골	7월 2일(화)~12일(금)
17교구	카자흐스탄	7월 2일(화)~12일(금)
에바다부	카자흐스탄	7월 2일(화)~ 9일(화)
아 멘	스리랑카	7월 2일(화)~12일(화)
9교구	카자흐스탄	7월 2일(화)~12일(금)
8교구	우크라이나	7월 5일(금)~17일(수)

신자로서의

갯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

유월절 식사를 마친지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기를 찢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갯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쉬기 위해 가끔 모이시는 곳이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권고를 주시고, 친밀한 세 사람을 데리고 "심히 고민하던 죽게 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는 홀로 나아가 열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던 주님.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세 번씩이나 동일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신 것과는 달리 제자들은 자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당하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신비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고민 하시며' 힘써 기도하셨기 때문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리라"라고 했다(눅 22:44). 이것은 예수님께서 불안한 마음으로 혹은 거의 공포에 가까운 감정으로 앞으로 당할 시련을 내다보셨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시련을 가리켜 '온 잔'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가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렇다면 이 잔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자신을 향한 제적과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 그리고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에 대한 정신적인 괴로움일까? 아니면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을 목욕과 학대일까? 예수님께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이 잔은 온 세상의 죄를 집어주어 한다는 영적인 고뇌, 즉 자신이 집어온 모든 인간의 죄 위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야 한다는 영적인 고통이었고, 죄로 인해 자기 아버지로부터 소외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단 것이다. 그러나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또한 그것을 위해 그 아들이 죄를 담당하고 죽어야만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잔을 절대로 옮기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아시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비로소 이 엄청난 두려움의 고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아버지는 그 잔을 그 아들에게 내리셨고 아들은 그 잔을 마셨다.

다음주에 계속
(이성욱 목사)

선교사 이야기

모험가인가 선교사인가

리빙스턴(1823년~1873년)

수세기 동안 "백인의 묘지"라고 알려져 왔던 아프리카! 그 땅에도 이미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의 역사가 있었고, 데이비드 리빙스턴(David Livingstone) 또한 그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장인이자 아프리카 배터랑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랫에게서 북부 지역의 광대한 평원이 있는 쿠투만에는 "아침에 태양이 솟아 올를 때 선교사가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수천 개의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매혹되어 개척자로서 아프리카 선교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가 아프리카에 들어온 후 11년 동안은 아무런 두각도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는 선교지지를 세우거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도 아무런 업적이 없었고 한 사람의 개종자도 얻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는 아프리카 내륙, 한반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향해 모험을 시작했고, 최초로 잠베지 강을 따라 아프리카 내륙을 횡단하는 탐험에 성공한다. 이로 인해 그는 1856년 영국 대점을 받으며 영국에 돌아오게 된다. 그 성공에 힘입어 그는 새로운 선교교회 설립하였고 책도 발간하였으나 그 성공의 영향은 오래 가지 못했다. 그가 개척한 길은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노예상들을 인도하는 길이 되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고, 그의 강연에 고무되어 설립된 '중앙 아프리카를 위한 대학성 선교회'의 무분별한 행동은 그로 많은 회생을 치르게 했다. 그 후에 이어진 몇 번의 그의 탐험도 큰 성과 없이 끝났다. 그는 어느새 아프리카인들에게 구세주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해 주는 수염이 무성하고 이빨이 다 빠져 여윈 노인이 되었다. 그러나 탐험가라는 세상 명성을 뒤로 한 채 그가 처음 꿈꿨던 '선교사가 한번도 밟지 못한 그 땅'에서 바로 그 귀한 아프리카의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평안을 회복할 수 있었고 그들 품에서 조용히 죽음을 맞을 수 있었다.

(루스터의 '선교사 열전'에서)

주님의 은혜

정 준 호 (신혼가정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3년만에 딸 주은이가 태어나면서, 자출 저와 저희 가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퇴계로에 있던 충헌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렵듯이 하나님의 존경을 인식했지만 인격적으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공부하는 제 옆에서 항상 찬송을 불러 주시던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한 동안은 흔들림 없는 생활을 했었지만, 신앙이 죽고 내가 살아나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면서 학교생활만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도 멀어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어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보살피 주셨습니다. 대학을 갈 때도, 직장을 옮길 때도 제 자신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이루고자 했던 일들을 실패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행통이 아니라 무너짐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고집과 고집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저를 꾸짖으시며 하나님만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와 만날 때에도 결혼이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신학교에서 유아교육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불교인 아내의 가족들은 결혼을 기뻐하지 않았답니다.

한 동안 아이가 없을 때에도 걱정했지만 곧 나의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새벽기도를 다니며 기도하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을 때,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꾸짖으심은 참으로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꾸짖으심이 없었다면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은이가 제 품에 안겨서 편안한 잠을 청할 때 느끼는 뿌듯한 사랑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통해 얻으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매 주일

홍 탁 성 (신혼가정부 교사)

매 주일마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삶 속에서 가장 귀한 시간 속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은 나를 감동시킵니다.
사람들의 아름다운 미소는 내 마음의 허름을 치유합니다.

매 주일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성경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나를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시는 참된 가정을 봅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누는지 배워갑니다.

매 주일 주님 안에 거하는 신혼가정을 만납니다.
신혼가정은 주님만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신혼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체험합니다.

매 주일 교사로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사는 헌신의 가정을 배웁니다.
교사는 빛과 소금이 되는 가정을 배웁니다.



성도의 죽음 준비하기

4.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입니다

16일 위임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우리는 노인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노인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불변함과 위로와 자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장 강하게 믿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중년이라 불리는 시기에는 그분들에게 감히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눌려, 어머니의 아집에 눌려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노인이 된 나의 부모들은 권위도 아집도 없습니다. 무엇을 이룩해야 하거나 자신이 뛰어나도록 살아야 하는 어떤 이유도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삶의 전부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마치 어린이와 대화하는 것처럼 아주 편안합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불변함과 위로를 느낍니다.

나이는 이들을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첫 번째 과제가 다시 어린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최대한 독립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자연스런 욕망과는 정 반대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노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권위와 아집을 버리는 것과 어린이가 부모를 의지하며 자신을 부모에게 맡기는 것은 매우 흡사합니다. 즉, 노인이 된다는 것은 더 성숙한 자기를 갖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버리고 어린이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노인들이 갖는 그 특유의 초월적인 인격을 인간 스스로의 경험 속에서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처럼 인격자가 되기 위해 수도 없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거대한 신적인 힘을 느끼는 노인들이 그 힘에 의지하므로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회의 사제이며 심리학자인 '헨리 나폴'은 이 노인의 시기를 제2의 유아기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18:3)라고 하신 말씀을 그 근거로 언급했습니다. 제2의 유아기는 꼭 노인들만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목사님의 말씀처럼 젊은이들도, 중년들도 노인처럼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행복하게 노 내는 이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경험이었었습니다. 운동하다가 장이 파열되어 죽기를 원할 정도의 고통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의지하여 병원으로 실려왔죠. 저는 저를 나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수술하는 의사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투쟁력과 상관없이 저는 어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수술 후에 살게 되면 죽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안겨서 틀림없이 살게 되리라는 확신이었었습니다.

나는 이 색다른 사건 덕분에 힘없는 것만이 아기로써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유아기로 돌아갔으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어떤 거대한 느낌을 받았습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자녀가 되는 경험이었습다. 갑자기 나는 모든 세상에서의 의존함까지도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의존함으로써 죽음이 더 크고 방대한 삶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실력이나 능력에 대한 의존은 종종 우리를 노예상태로 이끌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자유로 이끌었다.

혼상 죽음을 맞고 싶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아직도 삶이 우리가 가진 전부이며 죽음은 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묵상은 왜 해야 하는가?

신체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약하여 병들게 되듯이 영적 음식이 결핍되면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신학공부를 오래 해서 성경을 외을 정도가 되었다고 해도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다면 성경은 단지 지식일 뿐인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구해야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기본적인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말씀묵상은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영적 수준 이상으로 남을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교훈을 전파하는 것 자체로서는 다른 사람의 영성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자신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말씀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 시작하지 않는 한은 그들은 우리의 영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주에 계속

[한국교회사]

신학의 발달 ... 세 갈래 흐름

기독교가 한국에서 성장하던 시기는 19세기 구한말부터 일제의 식민시대를 거쳐 해방과 독립,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던 요동기였다. 한국신학의 발달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전개되어 왔으며, 국가·민족·문화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민족적 위기를 겪으면서 신앙과 교회 사상의 형태가 결정됐다. 유동식 박사는 "한국교회사는 모두 민족적 운명을 열려하고 그 구원의 길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면서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여 나갔다"라고 분석했다. 첫째는 개인의 영적구원과 회상에 중점을 둔 교회의 내적운동이고, 둘째는 현실의 고난과 부조리를 극복해 나가려는 외향적 신앙운동이며, 셋째는 한국의 전통 문화 및 종교와 기독교 복음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문화 전체의 의미와 구원을 모색하는 신앙운동이었다. 이 세 가지 신앙운동은 다시 세 가지 신학의 흐름으로 전개되어 보수주의신학, 진보적 사회참여적 신학, 문화적 자유주의의 신학으로 나타났다. 보수주의신학은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학을 말한다. 하나님의 절대성이 강조되고 성서의 무오설이 이 사상의 대전제이다. 따라서 성서의 모든 비관적 연구를 배격하고 초월성과 절대성만이 강조된다. 이 신학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이 박형룡이다. 그는 선교사에게서 받은 신학을 지키며 '청교도적 개혁주의 정통신학'을 낳았다. 박형룡의 신학을 이어 받은 대표적인 교단이 예장합동·고신 개혁 등 보수 교단들이다. 진보적 사회참여신학은 사회적 살림살이를 통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실현하려는 신학이다. 진보적 사회참여 신학에서는 성육신의 사건들(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 바로 이러한 삶의 역사적 실현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성육신의 사건을 복음의 핵심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정의의 위한 예언자적 참여가 뒤따랐다. 이러한 신학적 전통을 낳은 대표적 인물이 김재준이다. 그는 도세오경의 지적문제와 심계명의 배경에 관한 학습을 소개한 신학강해를 불러 일으켰다. 이 사건은 심한 신학논쟁과 교권행사를 거쳐 1953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가 분리되는 최초의 교단분열을 가져왔다. 문화적 자유주의신학의 흐름은 기독교의 보수적 서구전통에 매이지 않고 한국의 전통사상과 기독교사상과의 조화를 모색하려는 토착화 신앙운동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수시로 변천하는 현실사회를 넘어 한국의 재래종교와 기독교의 만남의 문제를 신학의 주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다. 역사(歷史)의 전제를 통해 역사(役事)하시는 하나님을 보려는 관점이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이다. 문화적 자유주의 신학에 초점을 놓은 사람이 최병환이다. 그의 신학은 감신대제일의 학자들에 의해 이어졌다. 한편 신학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신학노선의 차이, 교단다툼으로 이어지고 교단의 분열을 가져왔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함

박 경 배 (의선부 스리랑카팀 교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리새인의 종교적 열심이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단지 예수님께 책망 받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무시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유대교리와, 성경 외적인 규례에 대한 엄격한 준수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수반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고통을 이겨낸 인격자들이었기에 자신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독특한 메시지와 행동과 생활 태도가 모욕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바리새인보다 세리와 창기가 더 천국에 가깝다'라는 주님의 선포는 유대교리에 있어 죄와 구원의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사고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온 유대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이유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바리새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것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리새인의 견해, 즉 '완벽한 인간으로서 점자적인 노력에 의해 구원을 획득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더욱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쉽사리 수긍되는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막 10:26-27).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은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이한 반파비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말씀에 근거해 바르게 선포된 메시지가 우리를 매료시키거나 혹은 반발하게 하고, 교회에 가담케 하거나 혹은 싫어하게 하여 어떤 무리들로 하여금 결국 교회를 박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로이드 존스). 왜냐하면 무의식중에도 우리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을 모욕하는 것이며, 성서하게 하는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은 버림받은 쓸모없는 존재이며, 세리와 창기와 같이 죄의 문제가 자신의 삶에 매일 실존적으로 부딪히고, 스스로를 '나는 벌레요(시 22:6) 거지이(루타)'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하찮은 존재들이니, 해방과 구원을 향해 팔을 벌리고 서있는 주님의 품 속으로 빨리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방명옥' 성도를 소개합니다



중국 연변에서 온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수원에서 직장에 다닐 때 그 곳 사장님의 절도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직장을 역삼도록 옮긴 후 지금의 사장님을 따라 충현교회에 나왔습니다. 먼저 다니던 교회는 비디오 송출 화면을 통해 예배를 드렸는데 충현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전신을 다해 예수님을 전하시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새가족부 집회에서 목사님이 알기 쉽게 전해 주시는 말씀을 6개월간 열심히 듣고, 늘 반갑게 맞아주시는 담임 선생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일생 동안 예수님만 굳게 믿고 살것들과 결심했습니다. 6월 말이면 학습 받고 새가족부를 수료합니다. 앞으로 대예배에 꼭 참석하고 언젠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숙정 통신원)

315장 "돌아와 돌아와"

다독이로만 전술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평생 검소하게 지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충성하였던 미국의 찬송작가 엘런 헌팅톤 게이츠 여사가 1886년 작시한 찬송가이다. 작시자는 누가복음 15장 11절~32절의 탕자의 비유를 배경 삼았다. 윌리엄 하워드 돈이 1889년에 가사에 꼭 맞게 작곡하여 많이 불려지는 찬송이 되었다.

원문 해설:

- 1절: 집으로 돌아오거라 돌아와도. 길이 아득고 쓸쓸하고 거칠구나. 너 마음이 곤고하니라. 주께: 이 방탕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도. 아 돌아와도 돌아와, 아서 집으로 돌아와도.
 - 2절: 집으로 돌아오거라 돌아와도. 우리가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 아들이 돌아오면 우리는 대문에 서서 기다린다.
 - 3절: 집으로 돌아오거라 돌아와도. 슬픔과 자책에서 죄와 수치에서, 그리고 웃음을 따는 유혹자에서.
 - 4절: 집으로 돌아오거라 돌아와도. 양심도 낙담하 썰매 두었고, 따뜻한 환영과 너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있는 곳으로.
- 참으로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음모 하나하나마다 깊은 사랑을 표현하며 불러 할 것이다. 특히 루미엥 셋잇단음표(8분음표 3개)부분은 애절하게 울듯이 부르면 더 깊이 아버지(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권영환원회)

+ 양오실

1교구 소개절 안수침사(남58세) 지난 4월 30일에 위암 수술 후 항암 치료 중인데 많이 힘들어 합니다. 치료 과정 중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을 것 같고 병의 치유를 믿어 기도해 주십시오.
7교구 박정순 침사(여54세) 척추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빨리 회복되도록 기

도해 주십시오.
10교구 박정순 침사(남68세) 간경화로 복수가 차서 배앓았습니다. 폐에도 물이 차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힘든 치료를 잘 견뎌 병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탁월한 선택

주은숙 (집사, 영아부 강준영 영매)

40세에 늦둥이 셋째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뻐하기보다는 낙심하고 고민하느라 태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안한 마음에 아기를 위해서 영아부 예배에 꼭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기가 두 달째 되는 2001년 1월 7일, 영아부 예배에 참석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눈이 어찌나 많이 내리던지 금방 발목까지 쌓였습니다. 몸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로 눈도 많이 와서 속으로는 다음에 갈까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기와 함께 하나님께 처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날씨가 나를 시험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주일날 아침의 탁월한 선택으로 지금까지 영아부 예배는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 낮에 뭘 때아빠는 날 몰라도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계시요 ♫”

영아부에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젊은 엄마들이 아기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만 나이가 너무 많아 어린 아기들의 찬양과 율동이 어색해서 고개도 들지 못했고, 이 나이에 율동을 함께 하려니 몸도 마음도 따라주지 않아 손이 어깨 위로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아이 둘(지은:중3, 하은:초등3)을 그 동안 키워왔지만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늦둥이 준영이가 겨우 몸을 가누기 시작할 때쯤, 속으로는 아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알까 하는 의문도 생겼는데, 영아부에서 찬양과 율동으로 예배를 드리면 준영이가 몸과 팔을 흔들며 따라하고, 집에 와서도 찬양을 들으면 예배 때에 했던 율동



을 기억하고 곧잘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영아 시기의 아이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실을 그해 깨달았습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이 증거될 때에 아기가 영으로 육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찬양과 율동이 꼭스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생애는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열심히 찬양과 율동을 하시며, 기도도 많이 해주신 어머니를 위해 위로와 권면도 해주십니다.

우리 교회처럼 영아를 위하여 별도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그리 흔치 않은데 영아기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기가 태어나면 꼭 영아부에 데리고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쁨을 느끼실 것입니다. 아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얼마 아파가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아기를 가졌을 때 낙담하고 고민했던 것이 영아부를 다니면서 지금은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늦둥이 준영이와 두 딸 지은, 하은이를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잘 쓰임 받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가하고

박 소 희 (유치부 영매역한)



어린이 주일에 동서울 노화에 주최하는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매 손을 잡고 넓은 올림픽 공원에 처음가 보았어요. 그날은 날씨가 참 좋았어요. 많은 교회에서 언니 오빠들이 왔어요. 저는 넓은 잔디 위에서 많은 공기를 마시며 우리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어 노는 놀이동산을 그렸답니다. 웃자리를 떨치고 그림을 그리니 더

욱더 신났어요.

저는 저의 생각과 상상력을 마음껏 하얀 도화지에 그렸답니다. 찬송과 기도도 했구요. 실물 찾기 등 여러 행사를 마치고 시상식이 있었어요. 맨 마지막 순서에 대상을 발표하는데 천혜교회 유치부 박소희라고 큰소리로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주 큰 상을 받아주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 키보다 더 큰 벽시계를 받아주고, 저는 정말 정말 기뻐했습니다. 저희 식구 모두가 기뻐합니다. 잘했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어린 저에게 큰상을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소희도 더운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쁜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소희가 되었어요. 친구들도 저와 같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싶어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가족이 더욱더 주안에서 감사함으로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 ‘소희’의 생각을 소희어머니께서 대필해 주셨습니다.”

【민음의 학교에서】

축복과 저주

신명기 28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만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반쪽만의 신앙을 가진 영적인 불구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으니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든지(28:1-14),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든지(28:15-68)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리니”(2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15절).

출애굽 한 지 40년만에,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눈 앞에 두고 서 있습니다. 가나안은 풍요의 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사악한 우상과 물질적 풍요와 도덕적 타락과 온갖 율욕이 가득 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사랑으로 간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에서 지킴과 같이 할 길을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누릴 복은 이방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도,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가 복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단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누릴만한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福)’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순종의 상태’가 이미 복(福) 받은 상태가 아닐까요? 이 땅에서는 오래 살고, 돈 잘 벌고, 명예를 얻는 것 등이 복(福)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개인의 물질적 축복만을 비는 기복 신앙과, 신앙과 물질적인 축복을 같이 보는 복(福)사상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축복은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복(福)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福)이 되어 주신 대에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복(福)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목표입니다”(오스왈드 캄버스)

(권형기 기자)

교회소식 / 새가족

모임

1. 장로 월요새벽기도회

일시: 24일(월) 새벽 6시의 후

장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기도회

일시: 25일(화) 새벽 6시의 후

장소: 교육관 109호

3. 찬양위원회 부대중·총무연석회의

일시: 오늘 15:00

장소: 찬양위원회실

4. 남년전도부 연합교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15

장소: 강변동

5. 전사·지역 월례회

일시: 25일(화) 권사신구회 후

장소: 갈릴릴움

남년전도

1. 베드로 5차 월례회

일시: 29일(토) 19:30

장소: 교회 앞 천원도(☎56359711)

2. 베드로 9차 월례회

일시: 오늘 고구모임 후

장소: 유아부 교사실

3. 베드로 11차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교육관 307호

4. 요한 8차 월례회

일시: 오늘 12:10

장소: 교육관 311호

5. 요한 14차 월례회

일시: 오늘 19:00

장소: 이강구 성도대(양천구 신정동
목동☎003-44 ☎091-9878)

별세

1. 강경원 성도

강종일 권사 부형, 17교구 아람1구역

/ 17일 별세, 9일 장례

2. 장혜미 권교사

이동성 집사 모친, 모교총 권사의 서

모, 6교구 서양2구역 / 17일 별세, 19

일 장례

3. 강경의 집사

8교구 서양1구역 / 18일 별세, 20일

장례

결혼

1. 이명진 권(이)종성 집사, 김경희 집사의 아들, 72교구 주미정 109 / 29일 (토) 15:00, 성우센터 17층
2. 김철환 권(김)은택 집사, 양혜자 집사의 아들, 호주 멜본 한인교회와 김씨을 양친문집 안수집사, 홍경숙 권사의 딸, 22교구 7월 6일(토) 12:00, 호주 멜본 한인교회

다음주 새벽기도회 달달

	24(월)	25(화)	26(수)	27(목)	28(금)	29(토)	30(주일)
설교자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여국근	김영훈	방준영	이성숙
기도자	장철형	안병호	천 철	안성영	이병영	조옥자	강국필

권사 수련회

일시: 24일(월)~25일(화) 10:00

장소: 갈릴릴움

교회주변 전도 실시

남년전도: 29일(토) 오후 2:20 여사(현동에서 기도회 후 각 장소로 흩어짐)
전도장소: 0 미배정된 지역의 성가나 주제가 공략

남년전도회 하반기 회계감사 실시

- 전도위원회의에서는 2002년도 상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리기간: 2001년 7월 첫주~2002년 8월 마지막 주일까지
 2. 대상기간: 2002년 1월~6월
 3. 감사장소: 전도위원회(교육관 6층)
 4. 준비서류: 시산표 2부(2002년 1월~6월), 금출납납부, 원장, 영수증등 등

장년1부 총동원 전도주일

일시: 오늘 12:30 장소: 교육관 507호

장년2부 여름수련회

"그만큼 내게로 돌아오라"(말 3:7)
일시: 7월 2일(목) 10:00~21:00 장소: 갈릴릴움

예배다부 주일 자랑봉사자 모집

예배다부에서 주일 자랑봉사자실 분을 찾습니다.

교로써 봉사할 수 있습니다.

봉사기간: 주일 07:30~09:00, 12:30~13:00

문 의: 예배다부 사무실

춘천소년원 자랑봉사자 모집

교정전도회에서 매주 토요일 춘천소년원 집회를 위한

자랑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기간: 토요일 07:00부터(6주동안) 한번 봉사

문 의: 교정전도회 박영덕 전도사(☎011-285-3723)

직원 모집

춘천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안내선생 60세 이상, 음향기술 50세 이상, 여성(이)집사(모)30
2. 지역 세례교인
3. 재능 서류 저를 이력서·주인명등본·당회장 추천서(타교인인 경우)
4. 서류 제출 서를 강남구 역삼동 665-1 춘천교회 사무국
5. 문의 ☎ 552-8200

영남신학교

충현중보의향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②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④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⑥ 교구별 태산자 전도와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⑦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교회 오시는 길



예배 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5:00	본 당
	V 오후 10:00(타교동생참석)	본 당
찬 양 대 배	오후 5:00	본 당
주 소 배 배	1:00~11:00 11:00~2:30	본 당
금 요 집 회	오후 7:30	본 당
새 계 기 도 회	오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초요집회	오전 11:00	버스: 오전 10:00(본당 앞 출발)
금요집회	오후 11:00	버스: 금요일 오전 9:00(본당 앞 출발)

기도원 차량 운행: 월, 목요일 10:00 / 월, 목, 금, 토요일 10:00(본당 앞 출발)

성 · 기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오진국	이병학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 전임목사

정현민	김정자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 교정전도사

박영덕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신교원
-----	-----	-----	-----	-----

2002년도 하반기 장학생 신청안내

1. 선발대상

- ①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0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
- ② 본 교회의 교회학교에 재학한 중·고·대·대학원·신학대학원 학생
- ③ 재야배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참여하여 교사와 장년대원으로 봉사하는 자

2. 신청기간

신청일수: 2002년 6월 23일(주일)부터 7월 14일(주일)까지 3주간

3. 신청장소: 교육국

4. 문의: 교육국 (☎552-8200, ☎472)

새 · 가 · 족 · 을 · 한 · 영 · 합 · 나 · 다

번호	성 명	교 구	소속처	인 도 자	번호	성 명	교 구	소속처	인 도 자
443	임향미	2	청년2부		454	김영희	13	-	
444	정용길	4	청년2부		455	양시호	13	-	
445	김달모	8	베드로		456	이성훈	15	소망부	유보희(2)
446	유정식	8	루디아		457	김정현	17	베드로	반연숙(1)
447	김정현	8	루디아	박옥성(8)	458	홍정진	19	청년1부	
448	박유미	8	대학부	459	박완화	19	청년1부		
449	이성훈	16	청년1	460	송수아	19	고등부	정운정(3)	
450	정미호	10	마리아	최윤숙(17)	461	정경원	19	고등부	
451	한창희	12	청년2부	조원환(16)	462	한정민	19	청년1부	이옥선(3)
452	양시영	13	대학부	463	김진숙	19	대학부		
453	양영희	13	-	464	정민성	19	청년2부		

※ 춘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문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